

간호교육에 적용한 동료학습이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곽은미¹, 우진주^{2*}

¹중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경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Effects of Peer-Assisted Learning Applied to Nursing Education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Eun-Mi Kwak¹, Jin-Ju Woo^{2*}

¹Professor, Dep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Nursing, Kyungnam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교육에 적용한 동료학습이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이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G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중 총 22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규수업 종료 후 실험군(N=117)에게는 10주 동안 매주 1회 이상의 동료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대조군(N=112명)에게는 10주 동안 개별 자율학습을 진행하게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X²-test,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실험군에서 자기주도 학습능력(t=6.50, p<.001), 학업적 자기효능감(t=2.01, p=.046), 학업성취도(t=4.98, p<.001)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동료학습이 간호대학생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확인되었으므로 간호교육의 교과 외 활동 설계 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동료학습,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간호교육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eer-Assisted Learning(PAL) applied to nursing education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The research design was a pre-post-post design with an inequality control group, and a total of 229 students from G University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were included. After the completion of regular classes, the experimental group(N=117) was given a PAL program at least once a week for 10 weeks, and the control group(N=112) was given individual self-learning for 10 week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X²-test, and independent t-test using SPSS/WIN 21.0. As a result,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t=6.50, p<.001), academic self-efficacy(t=2.01, p=.046), and academic achievement(t=4.98, p<.001) were higher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As the positive effect of peer learning on nursing students was confirmed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can be used as useful basic data when designing extracurricular activities for nursing education.

Key Words : Peer-Assisted Learni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Nursing Education

*Corresponding Author : Jin-Ju Woo(jinjuwoo@kyungnam.ac.kr)

Received April 22, 2022

Revised May 30, 2022

Accepted July 20, 2022

Published July 28,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교육의 패러다임은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집단강의식 수업보다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 사고를 함양하도록 유도하는 교육방식을 선호하고 있다[1].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은 활발한 의사소통과 학습자 간의 협동을 통해 학습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고[2],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책임감을 갖게 하므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간호교육 또한 학생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법을 적용하여 간호교육의 질을 높이고 역량있는 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동안 간호교육은 교실에서 강의하는 방식의 수동적 학습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많은 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면허 취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전통적 강의식 교육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은 임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료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3]. 실제로 신규간호사는 임상에 적응하고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의 기회가 동료로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동료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업성취도뿐만 아니라 직장 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4]. 이러한 이유로 간호대학생에게 동료와의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하며 자기주도적으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법의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간호교육에 적용되고 있는 학생중심 교육법 중 하나는 동료학습(PAL: Peer-Assisted Learning, 이하 PAL)이다. 동료학습은 전문교사가 아닌 유사한 집단의 사람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학습을 이끌어나가는 학생중심 교육방법이다[5]. 학생들은 동료이자 교수이며 학습자로서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며 책임감을 강화시킨다[6].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르치는 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협업능력을 함양하게 된다[7]. 동료 학습자(peer learner)는 동료와 지함께 학습하며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서 자신의 학업역량 향상에 도움을 받는다[8]. 결과적으로 동료학습은 학업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학생 스스로 학습계획과 실행을 하면서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자기효능감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 기반하여 최근 건강과학 교육(health sciences education)에 동료학습을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

간호교육에서의 동료학습에 대한 연구는 2000년 이후 증가하였다. 타 학문에서 동료학습은 주로 이론교육에 적용한 연구가 많았으나 간호학에서는 임상실습교육과 술기교육에 적용하는 연구가 많았다[9-11]. 이는 이론교육만큼 임상실습교육이 중요한 간호교육에서 실습교육에 동료학습을 적용했을 때 학생의 사회화를 돕고 롤모델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입장에서 서로 도와 실무역량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간호학에서 동료학습을 적용한 연구 결과 학습동기 강화[9], 불안감소[10], 자긍심과 관계 발전[11]의 향상을 나타냈다. 또한 동료 교사에게는 자신감 향상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료 학습자에게는 걱정을 감소시키며 실무의 기회를 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 하지만 이 연구들은 모두 임상실습교육이나 술기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였고, 이론교육과 연계한 교과 외 활동에 동료학습을 적용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간호대학생은 교과과정을 통해 배우는 학습량이 상당하므로, 교과 외 시간에 교과 내용을 학습하고 익히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교과와 연계한 교과 외 활동에 유용한 학습법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론교과와 연계한 교과 외 활동에 동료학습을 적용하고, 그 효과로서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1.2 연구목적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에게 동료학습을 적용한 후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 동료학습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2 : 동료학습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3 : 동료학습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학업성취도가 더 높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한 동료학습이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의 유사실험연구이다. 구체적인 연구설계는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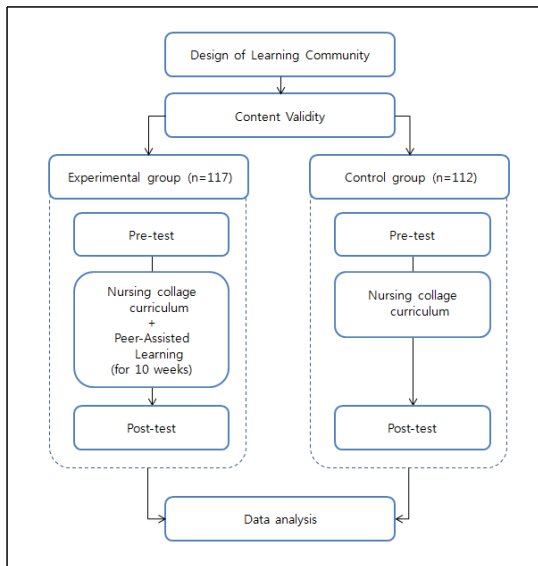


Fig. 1. Research design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K시에 위치한 G대학교 간호학과 1-2학년 재학생을 편의표집하였고, 연구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는 2회로 나누어 모집하였고 총 229명이 참여하였다. 10주간 진행되는 동료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117명을 실험군으로, 동료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학생 112명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1) 자기주도 학습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측정도구[13]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학습계획 20문항, 학습실행 15문항, 학습평가 10문항의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좋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5$ 였다.

2)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14]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좋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75$ 였다.

3) 학업성취도

Rovai 등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에서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CAP인지학습척도(Cognitive, Affective and Psychomotor Perceived Learning Scale)를 사용하였다[15]. 이 도구는 인지영역, 정서영역, 정신운동영역을 포함하여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9$ 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73$ 이었다.

2.4 자료수집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2017년 9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18년 3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2회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계획을 공지한 후 참여 공고문을 게시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공고문에 연구의 목적, 내용,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였다. 연구에 참여 신청한 대상자에게는 연구자가 직접 만나 구체적인 연구의 과정에 대하여 구두로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는 교과목 평가와 무관함을 알렸다. 본 연구자는 관련 교과목을 강의하지 않고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공지하였다. 이러한 설명을 모두 들은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와 별도로 작성된 안내문을 배부하고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도중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는 보상으로 팀 활동에 필요한

장소와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

2.5 연구절차 및 방법

본 연구는 총 2회 진행하였고 회차별로 동료학습이 각 10주간 진행되었다. 동료학습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인체해부학, 간호학개론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중 자율적으로 학습 팀을 구성하고 참여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팀은 4-6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2.5.1 동료학습의 개발 및 적용

동료학습의 설계는 ADDIE 모형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연구자 외 교육학 교수 1인이 참여하여 요구분석, 운영 방법, 활동 양식에 대하여 평가하고 수정·보완하였다. ADDIE 모형은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로 진행되는 교수설계 모형이다[16].

첫 번째로 분석단계에서는 환경분석, 문헌고찰, 요구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은 비판적 사고능력, 자기주도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과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학습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간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직장 적응을 높이기 위해 동료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학생 중심 교육의 대표적 방법인 동료 학습을 선정하였다. 요구분석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관식 설문을 통해 시행하였고 학생주도 팀 학습을 위한 공간 제공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설계단계에서는 학습전략과 운영 및 평가방법을 설계하였다. 연구자는 동료학습을 적용할 교과목을 해부생리학과 간호학개론으로 지정하고 팀 인원은 4-6명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팀 내 모든 학생이 돌아가면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팀 구성과 학습내용은 학생 주도로 선정하도록 하고 학습방법 및 학습목표 또한 학생주도로 하여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진행 장소는 대학 내 토론 및 교육이 가능한 강의실을 교수학습 지원센터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선정하였으며, 사전에 사용신청 하도록 하여 팀 별로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 주었다.

개발단계에서는 매주 동료학습 활동 후 작성해야 할 학습보고서 양식을 제작하였고, 학습 절차를 확정하여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개발하였다.

실행단계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습공동체 별로 10주 동안, 매주 1회 이상, 총 20시간 이상 동료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매주 학습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3명의 교수 멘토를 선정하여 10주간 최소 1회 이상 지도하고 학습내용 등에 대한 질의응답 및 심층면담을 시행하였다. 또한 학습법 컨설팅을 위해 관련 교육 및 실무 경험이 있는 연구원을 선정하여 4-6주차에 팀별로 1회씩 학습 참관 및 컨설팅을 시행하였다. 학습보고서는 중간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였는지 평가하였고, 10주간의 학습이 종료되면 학습보고서와 성찰일지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를 측정하였다.

2.5.2 대조군 처치

대조군은 실험군과 동일한 교과를 수강하는 자 중에서 동료학습에 참여 신청하지 않았으며 동료 학습과 유사한 학습법의 적용 없이 개별적인 학습을 진행하는 자를 선정하였다. 대조군에게도 연구에 대한 설명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가 끝난 후에는 대조군을 대상으로 연구의 결과와 동료 학습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연구 결과의 확산을 도모하였다.

2.6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X^2 -test,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였고,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은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를 이용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를 기준으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 결과 일반적 사항과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참고).

Table 1. Homogeneity of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229)

Variables	Exp.(n=117)		Cont.(n=112)		χ^2 or t	p
	n(%) or M ± SD	n(%) or M ± SD	n(%) or M ± SD	n(%) or M ± SD		
Age(yr)	20.67±5.95		19.96±1.16		1.27	.207
Satisfaction with nursing	Good	62(53.0)	54(48.2)		-1.49	.137
	Fair	55(47.0)	51(45.5)			
	Poor	0(0.0)	7(6.3)			
Personality dispositions	Extro-vert	53(45.3)	53(47.3)		.31	.760
	Intro-vert	64(54.7)	59(52.7)			
Colleague-ship satisfaction	Good	49(41.9)	46(41.1)		-.50	.617
	Fair	67(57.3)	62(55.3)			
	Poor	1(8)	4(3.6)			
Self directed learning ability	3.19± .29		3.13± .29		1.51	.134
Academic self-efficacy	3.04± .28		3.05± .23		-.43	.669
Academic achievement	3.16± .27		3.08± .45		1.69	.093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3.2 간호대학생의 동료학습 효과 검증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간호대학생의 동료학습 효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참고).

Table 2. Comparison of Self Directed Learning Ability, Academic Self 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fter Treatments (N=229)

Variables	Exp.(n=117)		Cont.(n=112)		χ^2 or t	p
	M ± SD	M ± SD	M ± SD	M ± SD		
Self directed learning ability	3.27 ± .32	3.15 ± .23	6.50	<.001		
Learning plan	3.27 ± .40	2.95 ± .29	6.87	<.001		
Learning execution	3.29 ± .31	3.09 ± .24	5.36	<.001		
Learning evaluation	3.23 ± .40	3.08 ± .30	3.26	.001		
Academic self-efficacy	3.07 ± .24	3.01 ± .23	2.01	.046		
Academic achievement	3.33 ± .36	3.08 ± .38	4.98	<.001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가설 1 :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실험군이 3.27±.32으로 대조군의 3.15±.23 보다 유의하게 높아(t=6.50, p<.001) 지지되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학습계획

(t=6.87, p<.001), 학습실행(t=5.36, p<.001), 학습평가(t=3.26, p=.001),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 :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실험군이 3.07±.24로 대조군의 3.01±.23 보다 유의하게 높아(t=2.01, p=.046) 가설 2는 지지되었다.

가설 3 : 학업성취는 실험군이 3.33±.36으로 대조군의 3.08±.38 보다 유의하게 높아(t=4.98, p<.001) 지지되었다.

4. 논의

간호교육은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식을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호대상자에게 적절한 간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다. 간호사는 임상 환경에서 전문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간호대학에서는 학생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에게 최근 적용을 넓혀 나가고 있는 동료학습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동료학습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향상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협동을 기반으로 한 동료학습법이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협동학습을 간호대학생들의 이론교육에 적용한 선행연구들의 결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18]. 또한 간호대학생이 아닌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료학습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도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9].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조절하는 과정을 거치고, 동료들과 서로 책무를 정하여 능동적으로 학습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간호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식의 양으로 인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전문적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역량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간호교육은 교육의 주제와 목표, 학습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동료학습 모델을 개발 및 적용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하위영역에는 학습계획, 학습실행, 학습평가가 있다[13]. 본 연구결과 세 가지 하위영역 모두에서 동료학습을 적용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학습 후 학생들이 제출한 학습보고서 및 성찰일지를 보면 '스스로 자원해서 동료 학습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고 학습했기 때문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여러 번 묻고, 의견이 다른 부분은 계속 토의하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등의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내용은 간호대학생들이 동료학습을 통해 스스로 학습을 진단하고 계획, 실행, 평가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학습의 동기와 의욕이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료학습이 학생이 주도하여 계획, 수행, 평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습동기와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증진되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의 학습동기가 높을수록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정도가 높았다[20]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에서 동료학습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료학습을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한 선행연구들에서 지식 정도와 성적이 향상된 것과 같은 결과이다[22,23]. 동료 간의 협동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은 먼저 학생들의 정서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기반으로 학습 참여도를 향상시키며,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갖도록 한다. 이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학문적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24]. 본 연구에서도 동료학습을 적용할 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팀원 모두가 돌아가면서 교수자의 역할을 경험하도록 한 것이 정서적, 인지적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학업성취의 향상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동료학습의 효과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학습하는 교과목을 2개 이론 교과목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교과과정 안에 동료학습을 적용하지 않고 교과과정 이후 비교과 시간에 동료학습을 적용하도록 설계하였다. 선행연구들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교과과정에 동료학습을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한 것과 큰 차이점이라 하겠다. 간호교육은 교과 수업시간 내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대한 학습량 때문에 수업 이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습하여 지식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필요한 역량이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학업적 자

기효능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 중심의 자율성을 더욱 보장하고 교수는 멘토로서 최소한의 관여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 결과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추후 간호교육의 비교과영역 설계 시 동료학습을 적용한 모델의 개발 및 적용을 제안한다. 단,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제한점으로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수업 이후에 진행되어 반복학습 등에 의한 개별효과를 배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학생 수와 범위를 확대한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료학습을 적용하고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동료학습은 2개의 이론교과에 연계한 교과 외 활동으로 설계하였으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와 내용, 시간을 설정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동료학습을 적용한 실험군에서 자기주도 학습능력($t=6.50, p=.000$), 학업적 자기효능감($t=2.01, p=.046$), 학업성취도($t=4.98, p=.000$)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를 통해 이론교과의 개별적인 학습에 부담을 가지는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간호교육의 교과 외 과정 설계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1] M. Banning. (2005). Approaches to teaching: current opinions and related research. *Nurse Education Today*, 25(7), 502-508. DOI: 10.1016/j.nedt.2005.03.007
- [2] K. W. Han, Y. S. Kim & Y. J. Lee. (2004). Study on interactive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in web-based learning.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7(5), 23-32.
- [3] Loke, A. J. & Chow, F. L. (2007). Learning partnership: The experience of peer tutoring among nursing students: A qualita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4(2), 237-244. DOI : 10.1016/j.ijnurstu.2005.11.028

- [4] Y. J. Lee & S. H. Cho. (2014). College students' learning styles and perceptions of the effectiveness of a peer tutoring program.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6(2), 371-389.
- [5] K. J. Topping. (1996). The effectiveness of peer tutoring in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A typology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Higher education*, 32(3), 321-345.
- [6] S. Buckley & J. Zamora. (2007). Effects of participation in a cross year peer tutoring program in clinical examination skills on volunteer tutors' skills and attitudes towards teachers and teaching. *BMC medical education*, 7(1), 1-9.
- [7] A. Han. (2011). The effects of learners' perceived roles of a tutor on satisfactions and perception of learning achievement in peer tutoring progra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1(4), 467-494.
- [8] S. A. Bae & R. A. Noh. (2014). Study on the college peer-tutoring program based on tutors' experienc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4(3), 247-277.
- [9] E. Y. Cheon. (2013). The effects of video-aided peer feedback on enhancing nursing students' understanding of foley catheteriz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1), 43-51.
DOI : 10.5977/jkasne.2013.19.1.43
- [10] P. Chojecki, J. Lamarre, M. Buck, I. St-Sauveur, N. Eldaoud & M. Purden. (2010). Perceptions of a peer learning approach to pediatric clinical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7(1), 39.
DOI : 10.2202/1548-923X.1893
- [11] C. A. Bell. (2010). Peer learning partnerships: Exploring the experience of pre-registratio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9(5), 803-810. DOI : 10.1111/j.1365-2702.2009.02981.x
- [12] C. Saunders et al. (2012). The experience of interdisciplinary peer-assisted learning (PAL). *The clinical teacher*, 19(6), 398-402.
DOI : 10.1111/j.1743-498X.2012.00568.x
- [13] S. J. Lee, Y. K. Jang & G. Y. Park. (2003).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Seoul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14] A. Y. Kim & I. Y. Park. (2001).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scale.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9(1), 95-123.
- [15] A. P. Rovai, M. J. Wighting, J. D. Baker & L. D. Grooms. (2009).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perceived cognitive, affective, and psychomotor learning in traditional and virtual classroom higher education settings. *Internet and Higher Education*, 12(1), 7-13.
DOI : 10.1016/j.iheduc. 2008.10.002
- [16] B. B. Seels & R. C. Richey. (1994). *Instructional technology: The definition and domains of the field*. Washington DC :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 [17] J. H. Park. (2010). Effectiveness of cooperative learning on nursing students' performance and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2), 202-212.
DOI : 10.5977/JKASNE.2010.16.2.202
- [18] M. G. Kim & H. W. Kim. (2019). The Effects of Jigsaw Cooperation Learning on Communication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oopera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5(4), 508-516.
DOI : 10.5977/jkasne.2019.25.4.508
- [19] C. J. Song. (2017). The Effect of Peer-tutoring program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o Lear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 93-120.
DOI : 10.22251/jlcci.2017.17.1.93
- [20] S. H. Han.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mong adult learner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7(2), 355-374.
- [21] S. A. Whang. (2021). The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n College Student Burnout among Nursing Students. *Korean Society for Simulation in Nursing*, 9(2), 73-85.
DOI : 10.17333/JKSSN.2021.9.2.73
- [22] I. S. Jung. (2018). Effects of classwide peer tutoring on academic achievement, self-leadership and interpersonal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4), 55-62.
DOI : 10.22156/CS4SMB.2018.8.4.055
- [23] J. H. Yang, G. J. Yeom & J. H. Kim. (2019). The Effects of Jigsaw Cooperative Learning Applied in Medical Terminology on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3(4), 37-47. DOI : 10.34089/jknr.2019.3.4.37
- [24] R. T. Johnson & D. W. Johnson. (2008). Active

learning: Cooperation in the classroom. *The annual report of educational psychology in Japan*, 47, 29-30. DOI : 10.5926/arepj1962.47.0_29

곽 은 미(Eun-Mi Kwak)

[정회원]



- 2004년 2월 :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10년 2월 : 을지대학교 임상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7년 2월 : 을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21년 3월~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교수학습법, 만성질환자 간호
- E-Mail : kem@jwu.ac.kr

우 진 주(Jin-Ju Woo)

[정회원]



- 2004년 2월 :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10년 2월 : 을지대학교 임상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6년 8월 : 을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21년 3월~현재 :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간호교육, 시뮬레이션 교육, 임상간호
- E-Mail : jinjuwoo@kyungnam.ac.kr